

● 우리들의 장상 (05. 27 ~ 06. 02)

지극히 기록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별 대축일 헌금	7,581,160 원	권상혁	윤재혁	이현주	최현주
교 무 금	16,675,000 원	김시환금	노성숙	이민숙	조혜순
			박윤신	이비아	최영남
					익 명
					익 명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균민	김명준	김윤중	박부희	서영수	양우권	유정아	이복성	이해선	정금임	최윤선
강상목	김미경	김은경	박상관	성명자	양천희	유지영	이선복	이해정	정덕인	최윤자
강성수	김미성	김응수	박성재	손정숙	양혜영	윤병민	이성룡	이호섭	정병만	최창수
강안순	김상금	김익환	박성희	송경숙	엄영자	윤애리	이승선	이흥기	정운택	최혜숙
강은빈	김상준	김일환	박숙희	송기봉	여강은	윤현자	이영재	이희수	정철구	최호정
강지선	김석남	김종해	박양준	송성규	염동권	윤현주	이영희	이희승	정혜성	추명자
강진란	김선태	김행우	박영숙	송주용	오귀례	이강일	이원주	임금자	정호영	하은주
강철수	김선혜	김혜련	박영희	송희경	오백교	이경애	이인순	임동열	정희정	한승주
고국환	김성년	김혜숙	박우순	신강민	오성균	이경원	이재곤	임명순	조문화	홍보라
고현식	김세중	김화정	박유진	신명순	오성재	이경자	이재찬	임윤석	조영옥	홍영균
곽성숙	김소래	김효주	박의부	신승화	오제옥	이계경	이정미	임정재	조형원	황인자
권기문	김순옥	남상태	박정규	신재은	왕임준	이귀주	이정순	임화숙	조혜순	황정권
권희섭	김영금	노성숙	박정덕	신태경	원복순	이규호	이종목	장관수	주창원	
금소희	김영미	문영자	박종호	심규철	원용대	이기정	이종윤	장연주	진옥례	
김경덕	김영숙	박강희	박태훈	심향란	원은영	이남순	이주경	장인홍	진희원	
김계원	김예빈	박귀순	박현정	안광진	원지영	이동호	이주열	장정임	최병철	
김기홍	김용식	박문희	배경근	안용수	유단화	이리호	이주은	전문자	최세일	
김길자	김유경	박미숙	백문기	양경희	유석운	이미숙	이철우	전정미	최영주	
김만자	김윤전	박민흥	서병기	양승녀	유성순	이보련	이한석	정경미	최유진	

⊕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보고 맛보고 만져 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 있는 빵이여,
 제 영혼 주님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를 주님의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